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석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어서도 혼자서 일상생활조차도 하지 못하고 일생의 돌봄이 필요하여, 다른 장애에 비해 특수성이 있고, 2014년1월 신안 염전 노예사건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달장애와 관련된 가족 자살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장애인 40만 명 중 발달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은 2만8천여 명 이고, 여기에 뇌병변장애인 4만3천 명 중 50%를 포함하면 약 5만 명으로 전체장애인의 12.5%에 달하며, 발달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위 작용(인지처리과정 또는 정서처리과정)의 결함과 관계된 중증의 만성적 장애인을 말합니다.

전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경우를 보면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최초 제정되어 30여년이 지났어도 장애인 복지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최초 법제정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적시에 지원을 위해서는 시급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미,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 등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을 삶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고통 받는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